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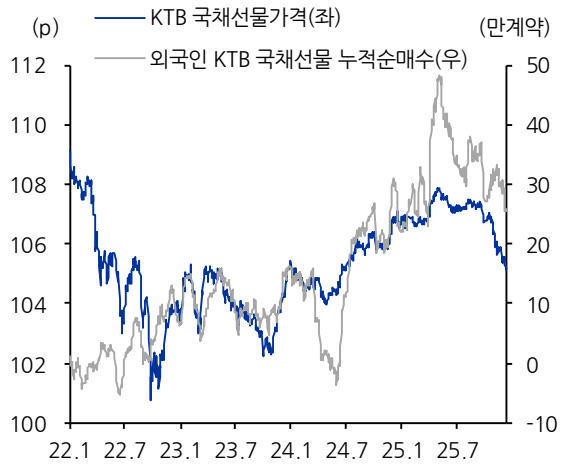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 02)368-6149_ 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 02)368-6138_ jhoonlee@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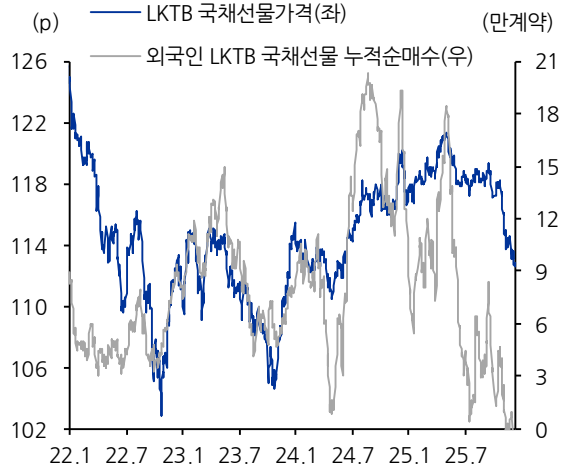
(단위: %,bp, 틱)

		12/12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093%	-0.8	9.9	49.7
	한국 국고채 10년물	3.409%	3.1	5.1	55.4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31.6	27.7	36.4	25.9
	3년 국채 선물(KTB)	105.25	11.0	-34.0	-140.0
	10년 국채선물(LKTB)	112.88	18.0	-75.0	-404.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3.523%	-1.7	-3.8	-71.6
	미국채 10년물	4.186%	2.7	4.9	-38.7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66.3	61.8	57.6	33.3
	독일국채 10년물	2.858%	1.6	6.0	49.5
	호주국채 10년물	4.737%	1.6	5.1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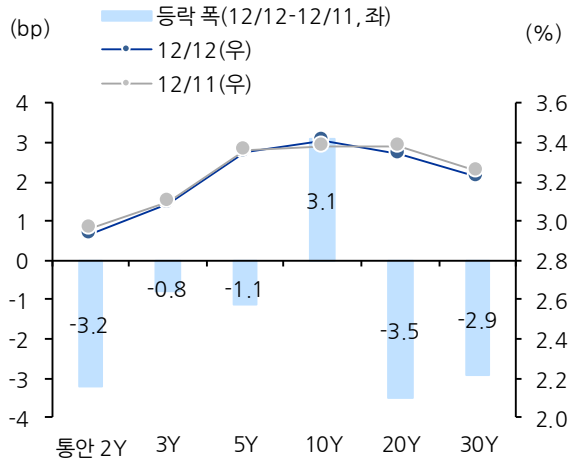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국고 10년물 제외 소폭 강세 마감.
- 전일 기재부의 국고채 발행계획 비중 중 단기물 비중 축소로 전일 단기물 대폭 약세 진행된 것의 여파로 일부 되돌림 나타나며 금리 하락 출발.
- 장기물 비중 축소와 함께 이날 시행된 50년물 입찰도 무난하게 진행. 이후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도 조금이나마 이어지며 투자심리 소폭 개선.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장기물 위주 약세 마감.
- 굴스비 및 슈미드 연은 총재가 12월 FOMC 동결표 행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영향. 내년 투표권을 가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제약적 정책을 선호한다고 언급하며 금리 상승 견인.
- BOJ에서 차기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도 금리 상승 영향.

자료 출처: 연합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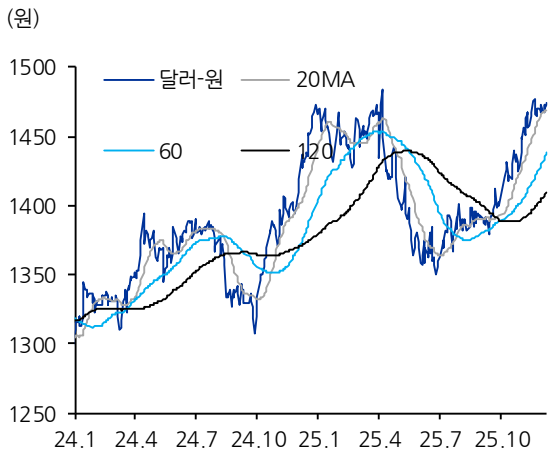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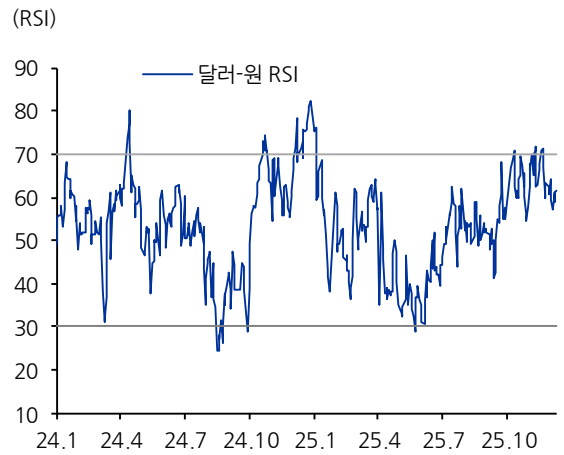
(단위: %, $)

		12/12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473.70	0.0%	0.3%	0.1%
	달러지수	98.40	0.1%	-0.6%	-9.3%
	달러/유로	1.174	0.0%	0.8%	13.4%
	위안/달러(역외)	7.05	0.0%	-0.2%	-3.8%
	엔/달러	155.88	0.2%	0.4%	-0.8%
	달러/파운드	1.337	-0.2%	0.3%	6.8%
	헤알/달러	5.42	0.2%	-0.6%	-12.4%
상품	WTI 근월물($)	57.44	-0.3%	-4.4%	-19.9%
	금 현물($)	4,299.47	0.5%	2.3%	63.8%
	비트코인($)	90,440.00	-1.7%	0.9%	-3.9%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0.70원 상승한 1,473.7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477.00원 마감.
- 간밤 달러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스위스 프랑 강세에 하락. 달러-원은 보합권 출발 후 장중 별다른 방향성 없이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 국내증시도 전일 오라클 충격에서 회복하며 코스피가 +1.3% 상승,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2,000억원 가량 순매수.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소화하며 하락.
- FOMC가 끝나고 연준 인사들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 내년 투표권을 얻는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인플레보다 노동시장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 이번 회의에서 동결에 투표했던 굴스비 총재도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낙관. 다만 역시 내년 투표권을 얻는 해맥 총재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제약적이어야 한다고 평가.
-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AI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급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 급등.
-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1,465 ~ 1,485원 범위에서 등락 예상. 주중 미국 고용, CPI 및 BOJ 정책회의 예정.